



# 급성장하는 유기농 우유시장

뉴욕지사

## 웰빙열풍 타고 유기농 우유시장 점차 확대

- 미국 내 흰우유 시장은 성장이 정체된 반면, 고급 유기농 우유시장은 고속성장하고 있다. 유기농 우유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웰빙열풍'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유기농협회(OTA)\*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부모들이 유기농제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소비집단이며, 품질이 뛰어난 유기농 우유가격이 일반우유보다 두배 가량 비싸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구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구매태도는 점차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다.
- Mintel\*\*연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낙농업 매출의 하락규모는 159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유제품 판매량이 소비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가격은 낮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식물성 대체식품이나 유기농 제품의 판매액은 2020년까지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 유기농협회(OTA) : Organic Trade Association, 북미 지역의 유기농업협회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 Mintel : 영국 런던에 글로벌 본사를 둔 국제적 시장조사기관



## 유제품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

- 유기농우유란 미국농무부(USDA)에서 유기농인증을 받은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의미한다. USDA는 소 한마리당 일정면적 이상의 초지와 축사, 방목장을 확보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사료로 소를 키우는 목장에 대해서 유기농인증을 부여한다.
- 유제품산업이 직면한 매출하락이라는 위기 속에서 유기농인증을 받고 건강한 우유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하나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기농우유 뿐만 아니라, 유기농우유를 원료로 한 단백질음료, 단백질 분말제품,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하고 버터나 치즈와 같은 2차 가공품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위축되어가는 유제품시장에서도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약된다.

출처 : <https://www.ams.usda.gov>  
<https://www.dairyreporter.com>  
<https://www.fooddive.com>